어른 뺨치는 10대들

여중생 원조교제 알선 성매수남 협박 돈 뜯어

서부경찰, 청소년 6명 검거

가출 여중생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알선한 뒤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성매매를 알선한 B(16)군 등 10대 6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10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남구 S모텔에서 생활하면서 가출 여중생 Y(16)양에게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속인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물색한 상대 남자 L(40)씨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6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Y양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곧바로 모텔에 들어가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현금 49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화대를 주지 않고 달아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알선비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성매수 남성을 편의점 현금인출기까지 끌고가 돈을 빼앗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이들은 또 Y양의 아이디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범행 대상을 직접 물색한 뒤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Y양과 원조교제를 한 성매수 남성 L씨 등 6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Y양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남경찰청 66년만에 광주 떠난다

10월 남악신청사 개청… 직원 500명 출·퇴근 불편

전남지방경찰청이 10월 10일 무안 남악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30일 현재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위치한 신청사 공정률은 99%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09년 6월 착공한 신청사는 3만4123㎡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신청사는 3개 동으로 나뉘는데 민원동에는 민원실이, 본관동에는 각 실무부서·112 통합센터가, 별관동에는 경찰 지방학교·장비계·교육계 등이 들어선다.

전남경찰청은 다음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이사를 한 뒤 10월 10일 개청과 함께 66년 간의 광주 시대를 접고 본격적인 무안 남악시대를 열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1945년 전남도 경찰부로 시작, 1949년 전남도경찰국으로 명칭을 바꾼 뒤 1991년 8월 전남경찰청으로 승격했으며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분리 개청으로 2007년 5월 옛 광주서부경찰서 자리로 옮겨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주거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경찰청 인력은 모두 4876명(전남경찰청·21개 산하 경찰서 포함). 이중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477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신청사 이전 후 2년6개월간 출·퇴근 통근버스 8대를 동원, 광주에 사는 직원들을 실어나를 방침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택 건립 계획은 없다. 차선책으로 출퇴근 통근 버스를 배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지방경찰청 연혁

1945.10.21	전남 경찰부 설치
1946.04.15	제 8관구 경찰청으로 개칭
1949.03.07	전남경찰국으로 개칭
1959.02.23	금남로에서 광산동 이전
1991.08.01	전남지방경찰청 승격
2007.05.31	월산로 청사 이전
2011.10.10	남악 신청사 개청(예정)

장애진단서 허위 발급 의사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30일 브로커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광주일보 8월 30일 6면)로 의사 정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80명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3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과 협의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심 무죄' 11세 여아 성추행범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檢 "진술 생생 신빙성 높아"

여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세 여자 어린이를 변태적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생생해 음란동영상을 보고 사실을 꾸몄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법정구속됐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5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동네에 사는 11세 여아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직접 부르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피해 관련 진술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을 본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아동의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에 들어갔다.

성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녹화와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통화내역 분석 및 피고인의 교도소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노력으로 유죄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한가위 '사랑의 선물'

3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적십자회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장애인·실직가정 등 4800세대에게 선물할 쌀과 식재료 등을 운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낮 금방 털려

고창 3천만원 훔쳐 도주

대낮에 금은방이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오후 1시40분께 고창군의 한 귀금속 상점에 도둑이 들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는 주인 강모(여·45)씨가 상점 안방에 앉아 있는 사이 상점에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50m가량 떨어진 곳에 바쳐 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강씨는 "인기척이 나서 밖을 보니 누군가 진열장을 뒤지고 있었다. 방에서 뛰어나가자 범인이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금은방 인근 도로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

광산장학회 펀드 투자 "처벌 불가"

광주지검, 공소권 없음

검찰이 장학기금을 부적정 하게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광산장학회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30일 광산장학회에 따르면 광산장학회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조사했던 광주지검이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장학회에 통보했다.

검찰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채권·펀드에 장학기금을 투자해 장학재단에 모두 2억4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금을 운용한 사실에 대해 조사했다. 서부 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런 사례가 드러나자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광산장학회측은 검찰에서 '순수한 의도로 재단기금을 늘리려고 투자했고, 관할 승인절차가 생략된 것은 사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 피의자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내리는 결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멧돼지 물린 포수 하룻만에 사망

지난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멧돼지에 물려 중태에 빠졌던 수렵협회 회원 임모(58)씨가 30일 오전 8시40분께 사망했다.

임씨는 29일 오후 4시30분께 마산합포구 진전면의 한 마을 밭에서 일을 하던 황모(67)씨가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에게 물려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했다.

임씨는 멧돼지를 올가미로 잡으려다가 멧돼지에 온몸을 물려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말벌 제거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낮은 온도서 활동 무력화

순천소방서, 분사기 개발

"생명을 위협하는 말벌 제거는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벌집제거 요청에 바쁜 119구조대원들이 개발한 말벌 퇴치 장비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은 최근 말벌 잡는 '신무기'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사진〉

대원들은 그동안 안전복과 살충제 스프레이에만 의존하느라 벌집 제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원들의 부상까지 속출하는 상황을 고민하던 끝에 직접 장비 개발에 나섰다. 이 장비는 말벌이 낮은 온도에서 활동을 멈추고 무력화된다는 점에 착안해 영하 76.5도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분사하도록 했다. 이 분사기는 말벌뿐 아니라 뱀 등 유해동물 포획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구조대원들은 자랑했다.

특히 이 장비는 유효 분사거리가 8m나 돼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접근이 어려운 말벌집 제거에 용이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쌍나팔

'디워' 심형래 임금체불 조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30일 "임금체불과 관련해 '영구아트무비' 사원들의 진정이 들어와 최근 '디워'(2007), '라스트 갓 파더'(2010) 등을 제작한 심형래 영구아트무비 대표를 임금체불혐의로 조사했다"고 설명.

○…조사 과정에서 심 대표는 '영화제작에 투자하다 재정난을 겪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체불액 규모, 영화사의 재정난 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

○…노동청은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심 대표의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심 대표는 2009년 '디워' 제작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 사회복지직 | 부사관(육군·공군·해군)
개강 9월 1일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